



I&S
INTEGRATION & SOLUTION

아이앤에스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대표변호사 조영길

고객의 문제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앤에스(I&S)의 원칙은 모두 같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길에 대한 믿음.
보편적이며 타당한 원칙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의를 해결하는 것.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을 발견하여
의뢰인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The all-new OHAUS EXPLORER

Introducing the most intelligent
and intuitive balance ever to
come from the
mind of OHAUS



<<Pipette

<<pH Meter

새로워진 오하우스

- ✓ 정전기 방지 코팅유리
- ✓ 플터치 패드 방식
- ✓ 적외선 감지센서 기능
- ✓ 자동 도어 방식

Specifications

Model	EX124	EX224	EX324	EX223	EX423	EX623	EX1103	EX2202	EX4202	EX6202	EX10202	EX6201	EX10201
Capacity (g)	120	220	320	220	420	620	1100	2200	4200	6200	10200	6200	10200
Readability (g)		0.0001			0.001				0.01			0.1	
Repeatability std (g)		±0.0001			±0.001				±0.01			±0.1	
Linearity (g)		±0.0002			±0.002				±0.02			±0.1	
Stabilization Time (sec)	≤2		≤3		≤1.5						≤1		
Weighing Applications	Weighing, Percent Weighing, Parts Counting, Check Weighing, Dynamic/Animal Weighing, Filling, Totalization, Formulation, Differential Weighing, Density Determination, Peak Hold, Ingredient Costing, Pipette Adjustment, SQC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kr>

"생생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으세요"

YouTube™ www.youtube.com/ohauscha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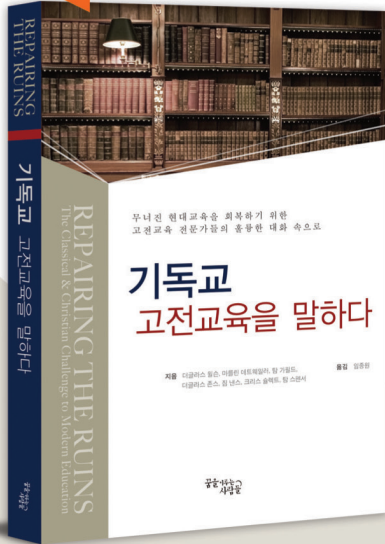


www.facebook.com/ohauscorp



2013년
신 간

REPAIRING THE RUINS



기독교 고전교육을 말하다

지음 | 더글라스 윌슨, 마를린 데트웨일러, 탐 가필드, 더글라스 존스, 짐 낸스,
크리스 슬렉트, 탐 스펜서

옮김 | 임종원

정가 | 15,000원 | 신국판 352쪽

무너진 현대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고전교육 전문가들의 훌륭한 대화 속으로

“왜 고전교육이 필요한가?” 교육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부모와 교사인 우리는 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았던 교육의 부족함을 느끼며, 교육에 대한 저마다의 고민과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이 책은 고전교육에서 그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들도 처음에는 동일한 질문에 봉착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고전교육에서 신뢰할 만한 정답을 찾아냈다. 그래서 현대적인 교육 방법론과 고전교육의 트리비움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고전교육을 확실하게 기독교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CONTENTS

Section1 성경적 세계관 1 교육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 / 2 교육에서 개인적 성결의 중요성 / 3 기독교 학교에서 경건한 징계 / 4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권 가르치기 / 5 적용 사례 : 성경적 세계관과 수학 수업

Section2 고전적 지성 6 평등주의 : 우리의 대적 / 7 고전교육 모델 : 트리비움 / 8 초등 교육 과정에 적용된 트리비움 / 9 7가지 교육 법칙 / 10 논리학 교육의 목적과 방법 / 11 라틴어 교육의 목적과 방법 / 12 역사 교육의 목적과 방법 / 13 문학 교육의 목적과 방법 / 14 수사학 교육의 목적과 방법 / 15 변증학 교육의 목적과 방법

Section3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16 권위의 이해 : 정관, 정책, 지침 / 17 커리큘럼 계획과 감독 / 18 기독교 학교로서 모범과 섬김 / 19 학교와 부모의 소통 : 친권위임론 원리 / 20 학교 설립의 시작 단계들 / 21 에필로그 : 공교육의 흥망성쇠

추천의 글

이 책은 성경적인 세계관, 고전적인 지성에 대한 성경적 제안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학교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워가는 문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_신병준(좋은교사운동 이사장/소명중등학교 교장)

이 책은 기독교 교육의 본질과 고전교육을 정리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교육뿐만 아니라 원안에서 벗어난 기독교 교육의 문제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파헤치고 그 해결점까지 정확히 적고 있다. _이경원(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교장)

고전교육 방법인 ‘트리비움(Trivium)’은 천 년 이상 실험과 증명을 끝낸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요긴한 도구이다. 이 책은 지난 삼십 년 이상 고전학교에서 트리비움에 헌신하고, 숙달된 교사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다. _안정진(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교감/교목)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홈스쿨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el.02)529-7722 | www.dctybooks.co.kr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주관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간 생명의 존엄성

손봉호 (대표주관)

최근에 개발된 유전자 검사로 2,500가지의 질병 전조를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500가지만 고칠 수 있다고 한다. 고칠 수 없는 질병 전조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는 의료 윤리의 심각한 고민거리라 한다. 의학, 유전학, 생명공학이 발달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윤리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생명과 관계된 이런 윤리 문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것은 도무지 왜 사람의 생명이 존엄한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는 것이다. 이 근거가 흔들리면 생명 윤리의 모든 논의가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요즘 시간이 흐를수록 살인은 더 많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난다. 살상무기와 흉기, 낙태 기술, 독약, 생화학무기 등은 더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고 안락사와 자살은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환경 오염과 기상변화로 생명을 잃고 빈부격차가 커져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 원인을 사람이 제공하고 있으니 간접적인 살인이라 할 수 있다. 의학

과 약이 발전하고 인권 선언이 보편화되어 생명이 연장되고 생존권이 존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과거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신성하다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살인이 왜 나쁜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감각이 있는 생명, 즉 동물의 생명은 신비롭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믿어 왔다. 오늘날에도 채식주의자들 대부분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모든 다른 자연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반해 생명 현상만은 그렇게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공적으로 생명체를 합성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상당한 위협을 느낀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유신론자들은 적어도 생명만은 창조주의 전유물이므로 사람이 설명하거나 조작할 수 없고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작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화학적으로 생명을 합성하려는 노력을 그들은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다.





생명공학, 특히 인간의 생명 혹은 유전학 연구와 실험에 대해서 정부들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것도 그런 관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요즘처럼 생명과학이 계속 발전하여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거나 생명공학이 발달하여 생명을 합성하거나 조작할 수 있게 되면 생명은 그 이상 존엄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생명 윤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 현상이 신비롭다는 사실은 구태여 인간의 생명만 존엄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처벌하면서도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어렵고 단순히 개인 차원의 채식주의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은 신적(神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다는 생각은 상당히 일반적이었지만 요즘 인간의 정신현상을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해 버리는 물리주의(physicalism)가 확산되면서 점점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비교적 간단하고 상식적인 입장은 모든 인간은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己所不欲 勿施於人)는 공자의 가르침이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등의 황금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은 감각을 가진 모든 생물체의 가장 강력한 본능적 욕구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생명은 다른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생명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고, 인간이 가진 모든 기능, 가능성, 향유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생명은 귀중하고 따라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에서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류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자살하거나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을 때 그들을 비난할 윤리적 정당성이 없어진다.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 나쁘다는 주장은 살인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생명 윤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기본권과 더불어 생명 존중의 당위성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살인하지 말지니라.”(출 20:13)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6) 이제까지 어떤 이론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이 명령만큼 확실하게 정당화하지 못했다. 생명 윤리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무조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더욱 그러해야 하며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지금의 세속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 · FEBRUARY · 2013



COVER STORY

- 08 선한 의사 장기려 _이상규
- 15 장기려 선생, 그는 누구인가 _편집부

SPECIAL

- 18 성경적 세계관으로 의료선교 바라보기 _김민철
- 24 I am the Lord, who heals you _이정수

COLUMN

- 04 대표주자 인간 생명의 존엄성 _손봉호
- 31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_신국원
- 34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필독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_유희진
- 37 HOW.TO. 주일학교 주일학교, 미디어 정복기!
2편 최신 스마트 폰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정체성을 찾는 세대를 기대하며! _김희경



CULTURE

- 48 CMCA 60시간 영화제 _박혜경
- 51 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 _편집부
- 55 유머 과잉친절 _손봉호
- 53 가로세로

BOOK REVIEW

- 41 서평 『오리진』 _유건호

NEWS

- 52 사무국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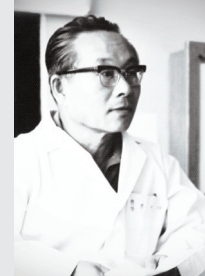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WORLDVIEW

2013년 02월호 WORLDVIEW 통권 152호



표지인물
장기려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주관 손봉호

발행/편집 김승옥

편집위원 김승태, 김혜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종모, 이상정

에 디 터 신효영

교정/교열 김선경

디 자 인 황정희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 로 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선한 의사 장기려

이상규 (고신대학교 부총장)

성산(聖山) 장기려(張起呂, 1911-1995) 박사는 선한 의사로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를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제도인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창설하고 청십자위원을 개원하는 등 가난한 서민을 위한 의료 활동을 전개했다.
장기려 박사의 행동 양식, 신념, 그리고 사회적 활동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의 삶의 여정과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들에 대해 살펴보자.



생애와 삶

장기려는 1911년 8월 14일(음) 평안북도 용천군 양하면 입암동 739번지에서 한학자였던 장운섭과 최윤경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기독교적 배경에서 성장한 그는 의성 학교와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수학한 후 의사가 되었다. 그는 17세인 1928년 경성의전을 지원하면서 의사가 되게 해준다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 가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것이 '선한 의사'로서의 첫 결단이었다. 경성의전 졸업 후 김봉숙과 결혼하면서 장인 김하식의 권유로 백인제 선생 문하에서 외과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때부터 후복막 봉과직염(後腹膜 蜂窠織炎)과 패혈증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1940년 9월에는 “충수염 및 충수염성 복막염의 세균학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나고야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기려는 1940년 3월 평양의 연합기독병원 외과 과장으로 가게 되었다. 이 병원은 감리교 선교사인 윌리엄 홀을 기념하여 1897년에 설립된 기흥병원(The Hall Memorial Hospital)에서 시작하여 1923년 평양의 장로교병원과 병합한 후 평양 연합병원으로 개칭된 기독교 병원이었다. 두 달 후 장기려는 안도선(安道宣, A. G. Anderson)의 후임으로 병원장에 취임하게 되었지만,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의 질시 때문에 두 달 만에 다시 외과 과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봉사한 일은 아름다운 일화로 남아 있다.





1943년에는 간상변부에 발생한 간암의 설상절제 수술(楔狀切除手術)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선의 학회에서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고, 1945년 11월에는 평양도립병원장 겸 외과 과장으로 약 일 년간 일했다. 1947년 1월부터는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외과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갔는데, 그는 이곳에서 수술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 등 일관된 신앙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이곳에서도 신뢰받았고, 1948년에는 북한 과학원에서 최초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0년 전쟁과 분단은 장기려에게도 시련을 안겨 주었다. 차남 가용만을 데리고 남하한 그는 부산 제3육군병원에서 약 6개월간 봉사한 후 경남 구제위원회 전영창 총무와 서기 겸 회계인 김상도 목사,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의 요청으로 1951년 6월 부산 영도 남항동에서 무료 의원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병원의 시작으로, 이때부터 1976년 6월까지 25년간 복음병원 원장으로 있었다. 그는 또한 서울대 의대(1953. 3-1956. 9)와 서울 가톨릭 의대(1965-1972. 12) 외과학 교수로 부산대 의대에서는 교수 및 학장(1956. 9-1961. 10)으로 있으면서 외과를 창설하기도 했다. 간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던 1959년 2월에는 간 대량절제수술에 성공함으로써 이 분야에 큰 기여를 했으며, 계속된 연구로 1961년에는 대한 의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장기려 박사는 의료 활동 외에도 전도 및 성경 공부를 위해 1956년 “부산모임”을 시작하였고, 1959년에는 ‘부산기독교사회’를 조직하였다. 1968년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복음병원 분원에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발족한 것은 그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다.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이 의료보험조합은 정부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보다 10년이나 앞선 순수 민간단체 주도의 의료보험 기구였다. 1975년에는 의료보험조합 직영의 청십자의원이 개원되었고, 이듬해에는 한국 청십자사회복지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1979년 8월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막사이사이 사회봉사상을 수상했고 복음





병원에서 은퇴한 후에도 청십자회원에서 진료하는 등 사회 봉사활동을 계속하다가 1995년 12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 생명, 평화는 그의 생애를 엮어간 핵심 요소였다.

삶의 기초로서의 기독교 신앙

장기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기독교 신앙이었다. 기독교 신앙이 그의 삶과 인격을 주형했다. 그의 이타적 삶,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술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신앙은 그의 삶의 근거이자 기초였고 목표였으며, 84년의 생애를 움

직여 온 축이었다. 그는 어릴 때 할머니를 통해 신앙을 배웠고 송도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인 1925년 세례를 받았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깨닫고 신앙적 삶을 모색하게 된 것은 경성의전을 졸업한 후였다. 그는 후지이 다게시, 우찌무라 간조, 야나이하라 다대오, 김교신, 함석헌 등 무교회적 인사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그는 김교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김교신은 내가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하나이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다. 장기려는 무교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자신은 무교회주의자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장기려는 해방 후 산정현교회가 다시 집회를 시작하자 출석하기 시작했고 곧 집사가 되었다. 평양인민병원 원장으로 있을 때인 1948년 8월에는 장로가 되었다. 이처럼 그는 교회주의자로 제도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무교회주의자들의 성경 연구와 가르침을 수용했다. 그의 영성은 교조주의적 한계에서 자유로웠고, 극단에 치우쳐 다른 편을 무시하는 등의 편협성에 빠지지 않았다.

남하한 이후 장기려는 이이라 장로, 박덕술 권사와 함께 1951년 10월 부산 중구 동광동에 산정현교회

를 재건하였는데, 이 교회를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로 둔 것은 제도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장기려는 제도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무교회적 입장을 수용하고 있었고, 무교회주의를 따르면서도 제도교회를 거부하지 않았다. 1981년 12월 부산 산정현교회 장로직에서 은퇴한

그는 1987년부터 흔히 ‘종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비교파적, 비조직적 신앙 운동에 관여하였고 치료를 위해 서울로 이동하기 전까지 적극 참여하였다. 평소 제도교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 장기려 박사는 외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순

수한 복음 운동에 매력을 느꼈고 이 ‘종들의 모임’에서 영적 안식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려 박사는 외적 조직에서 자유로운 복음적 신앙에 착념하였다. 따라서 그는 교회의 전통이나 신앙 고백, 교리적 내용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 운동, 신앙적 실천, 삶이 있는 신앙을 추구했다.





실천적 삶

그의 삶의 실천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위로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의는 하나님 사랑의 외연이었으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다. 복음병원에서 은퇴한 후 청십자의료조합과 청십자의원을 개원한 일이나 부산의 아동병원, 거제도의 애광원, 그리고 보건원의 자문의 봉사 등은 이러한 정신을 잘 보여준다. 실천적인 사랑과 선의는 그의 일관된 삶이었다.

둘째,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장려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존엄성(dignity)과 신성성(sanctity)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하나님이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인간의 생명은 그분 손 안에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다. 그에게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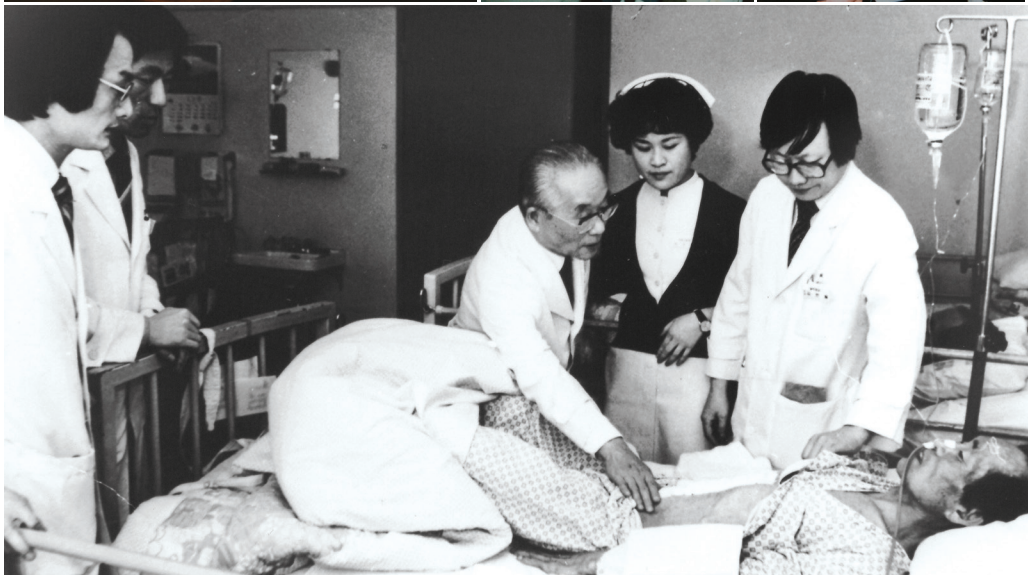
활동이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 보존시키는 것으로 인위적인 생명의 파괴는 범죄였다. 그는 생명에 대한 기능주의적 입장을 배격했다. 간 이식 연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그의 의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셋째, 무사무욕(unselfishness)의 삶을 살았다. 장기려는 무소유의 삶을 지향했다. 그에게 소유는 궁극적으로 남을 섬기는 수단이었다. 그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했고, 물욕이나 명예욕에 빠지지 않았다. 그의 삶이나 그가 남긴 유품들은 그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고, 무소유의 삶을 지향했는지를 보여준다. 장기려는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기적 부의 추구를 가능케 해주는 자본주의 제도 자체에 비판적이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간 명의(名醫)에게 무사무욕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의 태도이다. 그러나 그는 자족하며 사랑과 베품의 윤리를 실천했다.

넷째, 함께 사는 사회(togetherness)를 추구했다. 상부상조, 공생과 상생은 장기려의 윤리였다. 근본적으로 그의 모든 것, 곧 소유, 학문, 학위, 명예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창설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같이 살기 위해서였다. 1975년에 부산 수정동에서 청십자의원을 시작한 것도 가난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행려환자의 구호, 기독교사회를 통한 구급 활동, 간질병 환자를 위한 장미회 운영, 가난한 이웃을 위한 의료보험조합운동 등은 공생과 상생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에 대한 형제애를 강조하되 북한의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함께 사는 사회'는 그의 일관된 신념이자 실천 강령이었다. 즉, 그는 사랑의 보편주의(love-universalism)를 추구한 인물이었다.





다섯째, 종파주의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는 순수한 복음적 믿음만을 추구했지 교파나 교단, 인간이 만든 외형적 조직에 매이지 않았다. 즉, 그는 특정 교파나 교단을 절대시하거나 독선주의 혹은 편협한 배타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무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성 조직교회를 경시하지 않았고,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면서도 무교회 신앙이나 웨이커 교도와 교류했다. 그는 외형보다는 순수한 복음을 지향했고 신앙의 정통성(Orthodoxy)보다는 신앙의 정체성(Identity)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맺는 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려의 삶을 결정했던 신념, 행동양식, 사회활동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인도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의 생애와 삶의 여정이 인도주의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다. 그의 삶과 실천은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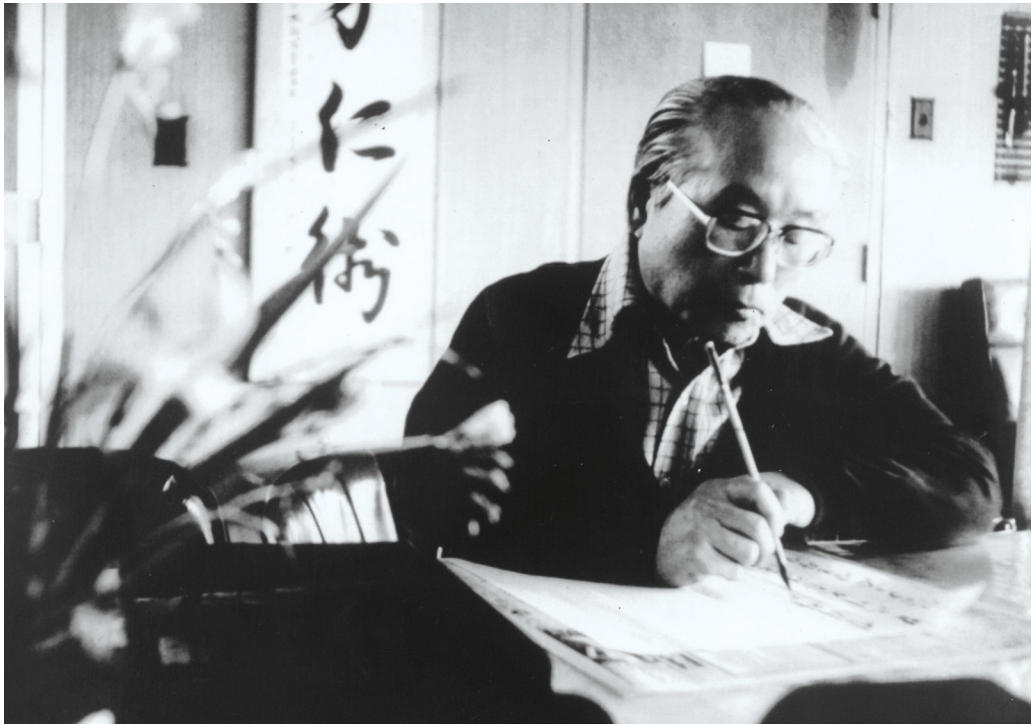
여섯째, 기독교적 가치(Christian values)를 추구했다. 그는 일생을 봉사자의 삶을 살았으며 겸손하고도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썼다. 그는 왜곡된 삶의 행태로 비난받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 것을 고취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보여주었다. 기독교 신앙은 그를 움직이는 이념이자 초석이었다.

고 신적 명령에 대한 응답이었다. 의료인으로서 그의 모든 활동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고 이차적으로는 인간을 섬기는 일이었다. 장기려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이웃을 섬기는 도구였다. 이것이 그의 소명(calling)이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이 두 측면은 그의 삶과 생애, 의료 활동을 이끌어간 양 기둥이었다.



이상규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이자 부총장이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거쳐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 호주신학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사상연구소장, 신학과장, 교무처장, 신학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연구이사, 개혁신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쓴 책으로는 『교회개혁사』, 『교회개혁과 부흥운동』,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교양으로 읽는 역사』 등이 있다.





장기려 선생님의 다른 서적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간의 부분절제 및 대량절제술에 성공. 부산의과학회를 창립하여 의학 연구 분야에 큰 공적을 남긴 인물.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병원과 간질환자들의 모임인 '장미회'에서 활동,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협동조합인 '청십자의료보험'을 창설하는 등 온전히 이웃을 위해 살다간 장기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사회봉사 부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자랑스런 서울대인 등을 수상하고도 이런 업적으로 기억되기보다 오직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된 사람 '바보 의사'라 불리기를 기뻐했던 성산 장기려.

“만일 누가 나에게 삶의 목적을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기독교 이상 주의자로 살고 싶다.”





장기려, 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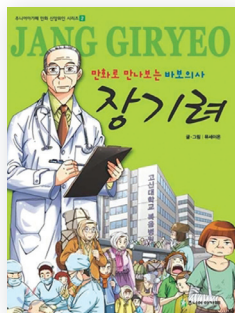
지강유철 저 | 홍성사

‘한국의 슈바이처’, ‘사랑의 의사’, ‘무소유의 삶’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장기려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평전 <장기려, 그 사람>. 장기려 선생에 대한 이전의 연구서나 책들이 간과하거나 예뉘려 간 문제들을 그의 일기, 노트, 잡지 등에 기고했던 글들과 무엇보다 그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명하면서 ‘참 장기려’를 그려내고 있다.

그는 거짓을 저주받을 짓이라 여기고 정직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으며,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는 의사였다. 또한 자신의 집에 구걸 온 거지와 겸상을 하고 입고 나간 코트를 거지에게 벗어주는 등 권력이나 돈, 신분 따위 따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오직 생명 있는 ‘존재’로 대하는 인물이었다. 평생을 공부밖에 몰랐던 사람. 없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더라도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 다며 전문의 자격증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외과학회 명예 회원을 고집했던 사람이었다.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공약만 있고 실천은 없는 정치, 예언자적 목소리는 사라지고 축복만 넘치는 교회, 대중사회에서 고립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 비전 없이 전공을 택하고 젊은 날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만 하는 세대, 맘몬에 빠져 돈이라면 뭐든 하는 사회, 가족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갈라서는 부부들. 참 평안이 없이 방황하는 오늘 이 시대에 장기려 선생의 메시지가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

“평화에 관한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를 청결케 하는 일이다. 믿음 생활을 다시 살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다. 참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뜻을 잘 살피며 헌신하는 일이다. 그것 없이는 개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세계에도 참 평화는 없다.”



아이들과 함께 읽는 장기려 선생.

만화로 만나보는 바보 의사 장기려

뮤세이온 글, 그림 | 주니어 아가페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바보 의사’로 산 장기려 선생.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좇으며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가난한 환자를 섬긴 장기려 선생은 똑똑해지려고만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바보’ 장기려. 장기려 선생의 위대한 삶을 생동감 넘치는 만화로 만나본다.

“경건한 인격자가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자, 자기 양심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만할 수 있는 자가 되자.”



DVD 소개

장기려 선생님 관련 영상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S미디어 모노다큐 인물한국사(비디오 녹화자료) <의학박사 장기려>(2004, KBS미디어) DVD 1매(60분)
- KBS미디어 모노다큐 인물한국사 <우리 시대의 성자-성산 장기려>(2005, KBS미디어) DVD 1매(60분)
- KBS미디어 인물현대사 <사랑은 기적을 이룬다-장기려>(2003, KBS미디어) 비디오
- EBS 신년특집 <명이가 뽑은 명의 장기려 박사 편>(2009)
- EBS 지식채널 <의사 장기려 1, 2부>(2009) 1부 성공의 길 / 2부 바보라 불린 의사

※ EBS e지식채널 <의사 장기려 1, 2부>(2009)는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ORLDVIEW SPECIAL

생명의 무게

어떤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진료실에 6그램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커다란 천칭을 설치하고
죽어가는 환자의 사망 전후 체중변화를 관찰했다.

실험 결과는
단 21그램, 불과 0.75온스 차이가 났다.

우리의 생명의 무게는
이 정도에 불과한가?

편집자 주)
월드뷰는 이번 호를 준비하며 다양한 관점의 의료선교를
소개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의료선교 바라보기

◎ 김민철 (안양샘병원 통합암전문병원 원장)





I

아프가니스탄의 흰 코끼리(White Elephant)

태국에서 기원한 이야기로, 귀찮게 하는 신하가 있으면 왕은 매우 희귀한 그래서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흰 코끼리를 선물한다고 한다. 신하는 왕의 하사품인 이 코끼리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엄청난 양의 먹이뿐 아니라 매일 200Kg이나 되는 배설물을 치우려면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코끼리를 내다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흰 코끼리(White Elephant)는 매우 가치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경우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중국의 원조로 아프가니스탄에 설립된 첨단 시설의 Jumhoriat 병원은 문을 연 그 다음 날부터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첨단 시설은 오히려 짐이 되었다.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해 수술실 자동문이 고장이라도 나면 수동식 문과 달리 열 수도 없었고, 기계실의 설계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배관이 새도 속수무책이었으며, 에어컨 실외기가 버젓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기도 했다. 파손된 시설과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해서 이 병원을 운영하려면 4천 4백만 달러가 필요한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보건의료 예산액 1억 3천5백만 달러의 1/3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누가 콜레라를 잡았을까?

1994년, 르완다 사태로 약 100만 명이 희생되었다. 『Time』과 『NewsWeek』에는 “지옥에는 악마가 없다. 모든 악마가 르완다로 내려왔다.”라는 절망적인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3개월간 의료진을 이끌고 들어가 일한 적이 있었다. 약을 주면서 후투(Hutu)어로 “하루 세 번 식후 30분마다 이 약을 드세요!”를 반복하던 우리 팀은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지 깨달은 것은 하루가 다 가기 전이었다.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들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음식이었다. 나는 곧 픽업트럭을 빌려 음식을 구하러 다녔다. 이 상황에서는 의사보다는 주방장이 의료적으로 더 효과적인 전문인이었다.

콜레라가 돌면 어린아이들은 12시간을 버티지 못한 채 지쳐서 죽어갔다. 베테랑 간호사라도 탈수로 숨어버린 혈관을 찾아 주삿바늘을 꽂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어떤 신참 간호사는 숨이 꺼져 가는 아이를 무릎에 안고 탈수로 쭈글쭈글해진 검은 피부 위로 눈물만 똑똑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무려 5만 명이 죽어갔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콜레라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대한민국의 내과 전문의를 단장으로 하는 응급 구호팀의 3개월의 헌신 때문이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옥스팜(OXFAM) 같은 구호 단체들이 기술자를 보내 오염된 키부 호수의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면서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좋은 일’이 한 일: 모기장 원조의 결과

아프리카에 한 모기장 제조업자가 있다. 그는 일주일에 500개의 모기장을 만든다. 10명의 직원들은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각각 15명 이상의 친족을 부양해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은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퇴치할 만큼 충분한 모기장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할리우드 스타가 개입하여 목소리를 높여 대중을 단결시키며 고통 받는 지역에 100만 달러를 들여 10만 개의 모기장을 보내라고 서구의 정부들을 압박한다. 결국 모기장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배포된다. 그는 분명 ‘좋은 일’을 했다. 그러나 외제 모기장이 시장에 흘러넘치면서 아프리카 모기장 제조업자는 업계에서 즉각 퇴출된다. 그가 고용한 10명의 직원들은 더 이상 150명의 팔린 식솔들(이제 이들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을 부양할 수 없다. 효과적인 단기 개입은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이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답바사 모요의 ‘죽은 원조’에서 인용). 물론 이것으로는 아프리카 모든 가정에 모기장을 공급해줄 수도 없으며 망가져 못쓰게 된 경우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지도 못한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가내 산업이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된 것은 이런 ‘좋은 일’ 때문이다.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은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첨단 장비의 고민

나이지리아의 시골 역베에 위치한 병원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초음파 기계를 들여왔다. 한국의 동료들이 보내준 것이다. 한 미국 선교사를 통해 먼저 들여온 미국 산 초음파 장비는 한 번 사용한 후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나이지리아의 전압은 220V이지만 실제로는 60-300V의 전기가 제멋대로 들어와 장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렸다. 따라서 이 장비만을 위한 발전기나 최소한 안정기를 장만해야 했다. 부품을 교체하면 고칠 수 있는 고장이라도 부품 값이나 운송비 부담이 컸고 중고품이라 AS가 안되거나 어렵사리 부품을 구해 주문하더라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프리카에서는 의료장비를 유지하는데 돈이 훨씬 많이 든다.

나의 인턴 시절은 초음파라는 장비가 상용화되기 전으로, 산과를 돌 때면 청진기로 태아의 심음을 듣고 아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현재 아프리



카의 상황이 꼭 그때와 같다. 우리 같은 선교사들 때문에 초음파를 접하면서 청진기로 태아를 진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프리카 의사도 있을 것인데, 이 초음파 장비가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더구나 선교단체가 초음파 장비를 아프리카 전역에 공급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가져간 초음파 장비는 아프리카 의사의 능력을 발전시킨 것인가, 후퇴시킨 것인가?

II

변화하는 세상

운영난에 빠져 기독교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선교지 병원들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한때 선교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선교 의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선 과거 슈바이처 시대와 오늘날은 의료 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슈바이처 당시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유일한 의료의 제공자로 희소성이 있었다. 오늘날은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만 한 해 3,000명의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또, 에이즈로 평균 수명이 4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의료적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었고, 기존의 전염병이나 기초적인 보건 증진은 관심 밖의 대상이 되었다. 보건의료 상황이 투자한 것에 비해 결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에이즈의 가세는 재앙이 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의약품이나 장비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인간적인 친밀함과 연민의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 수 있었다. 이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의료기기와 고가의 약에 의존하는 오늘날의 의료 선교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수많은 NGO나 국제기관과의 힘겨운 경쟁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의료적으로는 여행의 세계화로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AI(조류독감) 등과 같이 전염병의 국경 없는 전파라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확산은 자본에 의한 다국적기업의 의약품 시장 지배로 가격의 수직 상승을 초래하였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필수적인 약들의 생산 중단도 불사하게 되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순수해야 할 인도주의적 원조마저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미끼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지나치게 많은 조건부 원조(tied aid)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형태의 원조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결과가 중국이 원조하고 중국 기업이 시공한 아프카니스탄의 Jumhoriat 병원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들이 너무 흔하다는 것이다.





서양 선교사들의 12가지 잘못

세기의 선교학자 랄프 윈터(1924-2009)는 소천 직전 한국에 방문하여 “서양 선교의 12가지 잘못”에 대해 강조한 바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의료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선교회가 전 세계에 수많은 병원을 세우고 현지인들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치료에만 투자하고 예방과 건강 증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인제 와서 상황을 바꿔보려 해도 기존의 의료시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다 보니 갈수록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구약에서 살롬은 공동체적이며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교는 개인의 회심과 구원이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 치료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치료 중심의 서양 의학과 맞아 떨어지는 틀을 형성했을 수도 있다.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 치료 중심의 병원을 세우고 선교(전도)의 황금어장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기도 한다.

교회들이 의료선교를 전시용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헌신된 선교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병원을 세우고, 건물을 완공하고 사진을 찍고 난 후에는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의료선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첨단 의료기기와 고급 인력이 필요한 치료 중심의 병원이나 의과대학 설립 등을 추진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KOICA를 통한 해외원조금을 기회로 여긴다. 나머지 하나는 단기 팀 파송에 치중하는 교회들이다. 엄청난 물량 공세로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의료를 자기만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서양 선교사들이 반성한 것들이며, 장기 선교의 5배 재정을 사용하고도 의료적으로나 선교적으로 별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역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구조가 더 심각하다.

III

선교의 본질로 회귀하기: 성육신 원리

상황이 이렇수록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빌립 보서 22장 5-11절은 선교의 기본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케노시스’(κενωση 비움)는 성육신의 본질이며 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비우고) 우리 인간을 입으신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선교의 기본 원리이다. 즉 내가 가진 것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문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며 공생애 사역을 하셨다. 고치는 치유 사역은 오늘날에도 선교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의료에도 역시 성육신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우리가 가진 것을 전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육신의 원리가 어떻게 의료선교를 통해 표현될 수 있을까?

동떨어진 의료선교 현장

불행히도 성육신의 원리는 의료선교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설대위 선교사의 “의료선교의 도전과 위기”(Challenge and Crisis in missionary Medicine)라는 저서 서문에 이런 글이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나라에 건강을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서구의 과학 기술과 기술자들을 파견하는 일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



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병원에서 실종되어 버렸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세운 바로 그 병원에서 무수한 압력에 의해 그리스도는 내몰리고 있다. 의학은 남고 성스러운 임무는 사라져 간다.... 어느 사역에서나 신발이 발에게 어떤 식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절단되고 없는 발을 위해 훌륭하고 정교한 신발을 만드느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허비되는가?”

첨단 의학의 이식만이 의료선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일까? 빌링스(Paul Billings)는 앤더슨(W. F. Anderson)이 선천성중증면역결핍증(SCID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Syndrome) 환자에게 유전자 치료를 성공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바 있다.

“의사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ADA 결핍으로 인한 어린아이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희귀한 질병으로부터 어린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앤더슨의 노력에 존경을 표한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노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이 병을 연구하고 있다. 나는 유전학의 발달이 영양 결핍이나 교육 부족으로 인한 흔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해 조만간에 관심을 가지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설대위 선교사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존을 위해 애쓰는 국가들이 값비싼 선형가속기, 초음파 기기, CT 장비를 계속 구입하고 있다. CT 한 대 비용으로 10-15개의 일차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고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 시골에서는 이 비용으로 건강 문제의 90%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브라질 출신의 건강문제 전문가 리히터(H. B. Richter)가 도쿄 회의에서 한 말을 인용한다.

“기아와 문맹 퇴치를 위해 싸워줄 전자장비는 없을까요?”

오늘날의 의료선교는 토착화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 의료 현실과 필요에 대한 사전 조사나 우선순위 평가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를 이식하는 일이 의료선교라

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나아가 등위접속사 and(και)로 연결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속시켜 버리기도 한다. 정작 우리가 이식하려는 첨단 의료는 부자나라인 미국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사망 원인의 70%(말라리아, 설사, 호흡기 질환 등)는 전문인이 아닌 마을 건강요원들의 훈련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선교에도 성육신 원리 회복이 필요하다

앞서 소개한 에피소드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의 경험을 통해 내리게 된 결론은 의료선교에도 성육신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가진 것을 이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의료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치료뿐 아니라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전인적 돌봄을 통한 살롬을 그 문화의 틀 안에서 회복하도록 함께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은 현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자원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것(Available)이어야 한다. 아무리 첨단이라 해도 조달이 어렵고 의존적(dependent)이 된다면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지에서 접근성(Accessible)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자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세로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지의 절실한 의료적 필요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현지인들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Efficient)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영속성(Sustainable)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상처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의료선교는 복음 전파의 수단이 아니라 복음적 삶의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Primum non nocere!” 즉 “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말은 의료인에게 제1 강령과 같은 것이다. 의료선교에서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 단기로 1-2주 다녀온다고 수혜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기 의료사역이 영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의료적인 해악이 크다. 아직 의





료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항생제 내성을 목격하는 의료 선교사의 고민은 단기 팀이 방문하여 함부로 뿌린 항생제 때문에 벌어진 어두운 단면일 수 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베풀겠다는 태도는 예수님의 성육신 선교와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어디든 식약청(FDA)이 있고 의료법이 있어서 남의 나라에서 마음대로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그 나라 지식층들에게 기독교를 제국주의적인 종교로 인식시켜 오히려 적개심을 심을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사전에 현지 정부의 허가를 받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성육신 원리의 출발은 무엇 보다도 그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의료선교에 성육신 원리를 적용하면

원론적인 관점에서 의료선교를 바라보다 보니 비판적으로 기운 느낌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제 조금씩 출구를 열어야 할 때이다.

최근 적정기술이라는 영역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코끼리 똥을 이용한 종이, 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게 해주는 Q드럼, 열대지방에서 간단한 원리로 만든 휴대용 냉장고,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든 숯 등은 적정기술의 진보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교사들의 작품이든 원조의 결과이든 흰 코끼리(White Elephant)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이러한 것들은 매우 고무적이며 성육신적인 원리를 적용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선교의 발상전환을 유발하기에도 충분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의료선교에 성육신의 원리로 적정기술을 접목하면 그것은 적정의료(Appropriate medicine)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인이 자율적으로 복음 원리의 터전

위에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공동체적으로 살림을 이루어 가는 것, 곧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같은 것이 적정의료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현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재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조달 가능한 의료기술 및 기구들을 개발하는 것도 적정의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

“Who centered?”

사마리아인 비유(눅 10:25-37)에서 예수님은 역질문(Counter Question)을 통해 반전을 일으켰다. 즉, 율법사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던진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다. 율법사의 “나 중심의 질문”(Me-Centered Question)을 “강도 만난 자 즉, 이웃 중심”(Neighbor-Centered Question)의 질문으로 뒤집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본질이 아닐까? 선교의 중심에도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혹시 열매가 없는 실패한 의료선교가 있었다면 혹시 성육신의 본질을 놓친 건 아닌지 살펴보자.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보건의료 상황이 낙후된 하나님의 형상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다면, 먼저 중심성(who centered)을 회복한 후에 그에 걸맞는 적절성(appropriateness)과 영속성(sustainability)을 보장하는 일을 찾고 선행함으로써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1:9은 이것을 “우리 사랑(love)에 지식(knowledge)과 총명(depth of insight)으로 더욱 풍성하게”라고 말한다.



김민철 안양생병원 통합암전문병원 원장이다. 본 동역회 기독교세계관전문대학원인 VIEW의 생명윤리 객원교수이며, 한국누가회 전이사장이자 전 예수병원장을 역임했으며, SIM 국제 선교회 소속으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섬기기도 했다.



I am the Lord, who heals you

이정수 (Youtiful 봄성형외과 원장)



의료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한국계 여의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의료봉사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하며 이제라도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울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것들, 은사와 재물을 기꺼이 나눌 때 우리 삶에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의 분주함, 과도한 경쟁 등은 그 길을 아주 좁은 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다.

강남에 성형외과를 개설했던 지 3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사랑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만 가면 졸음이 쏟아져 예배시간 내내 잠만 잤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새신자반이 끝나갈 무렵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6개월도 채 안 된 초신자였던 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승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고난주간에 새벽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부활주일 예배 중 당시 교제 중이었던 아내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_고후 5:17

동일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리라”는 고백처럼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두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혜와 기쁨에 취해 만나는 사람마다, 병원 고객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병원 상황이 힘들 때에는 네 명의 환자들이 수술 중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기도응답하심으로써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이들 중에는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 진학 후 주의 길을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순구개열 아이들을 돌보라

언젠가 의술로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안이 들어와도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한참 후에나 가능할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네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담당 의사들은 둘만 건강하게 낳아 키울 것을 권면하였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네 아이 모두 1kg을 조금 넘는 체중이지만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백일 정도 되어서는 정상 아이들의 체중과 발육을 따라잡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네 명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맡겼으니 그렇지 않은 저개발국가의 구순구개열 아기들을 돌보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순종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후 라오스와 인도네시아에도 의료봉사를 갔는데, 라오스에서는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수술 사흘째 되던 날 첫 수술을 마치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열이 나더니 쓰러졌습니다. 고열이 지속되었고 구토가 나서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탕기열 정도로만 여기고 링거로 간신히 수분 공급만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야 급성 A형 간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달이 심해서 간 검사를 해보니 GOT, GPT 수치가 1900, 160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해외 봉사료 밀려 있던 환자를 보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_잠 16:9

의료봉사를 가려고만 하면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고심해서 내려야 할 결정들과 바쁜 일정들이 압박해 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In God's Image) 창조되었습니다(창 1:26~27). 즉, 의롭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피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서 영혼의 그릇인 육체도 창조 당시의 완전한 건강을 상실했는데, 그것이 곧 질병과 죽음입니다.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지만, 서원된 의료인들에게는 특별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저개발국가나 재해 지역의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슬람 국가로 불교 국가로 보내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나아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고 의료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저희의 발걸음은 항상 감사와 감격으로 넘칠 수 밖에 없습니다.





만남과 동역의 축복

- 해외 의료선교 단체인 G.I.C.의 설립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_빌 2:2-5

이렇게 단발적으로 의료봉사를 하던 중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선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향 후배이면서 고대 후배이기도 한 고대 의대 박관태 교수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몽골에서 4년간 의료 선교사로 섬기면서 2,000건이 넘는 복강경수술을 집도하고 의료 기술을 전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8월 24일 우리들은 치료자 하나님(I am the Lord, who heals you, 창 15:26)을 모토로 기형이나 질병, 빈곤이나 재난 등으로 소외된 지구촌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구호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의료봉사 단체를 설립하고 그 이름을 “Global Image Care”라 정하였습니다. 창세기 1:27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동역자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세 가지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1. 기형, 질병 및 가난으로 소외된 전 세계 이웃들에게 희망 주기
2. 각자의 재능대로 봉사하며 가치 있고 행복한 삶 나누기
3. “Thanks, Korea”에 기여하기



지금은 개인의 의료봉사 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던 동역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나눔으로써 세상에 대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필요했던 다양한 의료 기구들과 자본, 일꾼이 준비되었고 기도로 후원하는 동역자도 생겼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기도로 동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현재 Youtiful 불성형외과 원장으로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을 거쳐 고려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를 겸하고 있다.



이정수 원장님이 소개합니다 해외 의료선교 단체 G.I.C

G.I.C. 2013년 이후의 핵심 아이디어와 전략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
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_사 43:19

Competence.

효과적인 의료선교의 핵심은 의술의 전문성입니다.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business as mission이라는 말은 이미 낡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일자리 제공, 선진 기술 전파 등으로 다가가면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의료선교도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실력뿐 아니라 헌신된 의료진들을 영입하여 이중 일부는 직접 파송할 계획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1명을 파송할 예정이며 각지에 협력할 의료 선교사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Collaboration.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의료진들에게 선진의료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진행하거나 한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전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대학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교회와 선교사들과도 협력합니다.

Convergence.

복음전파의 역할을 할 교회, 대학병원, 그리고 전방에 파견된 전문 의료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 등을 통합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것입니다.

의료선교 프로젝트

미안마 프로젝트

VISION: 5.1000.5000

5년간 1,000명의 구순구개열 환자를 수술하고 그들의 부모형제 5,000명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 1년에 200명을 수술해야 목표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안마 의사 3명이 고대병원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아과 의사 선교사와 언어 치료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언어치료를 진단하고 수술 후 언어 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고대병원과 GIC, 서울 드림교회가 협력할 것이며, 환자와 환자 가족 대상의 전국 잔치를 연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심장병 프로젝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지금까지 심장병 어린이 8명을 초청하여 수술하였으며 2013년 5월까지 앞으로 12명의 어린이를 방문하여 수술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는 2차 심장병 환자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아이티는 G.I.C.의 박관태 이사가 네 차례 의료봉사와 문화 교류를 진행했던 곳으로 현지선교단체인 DFI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차드 보건소 건립

2012 하반기에 건축봉사단 Bami와 3개월간의 도면 미팅 후 보건소 계획안 확정하였습니다. 신반포교회와 협력하여 2013년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원 음악회

이를 위한 후원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자선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먼저 프리마돈나 신영옥 씨의 아이티 심장병 돕기 콘서트와 탤런트 김원희 씨를 주축으로 하는 미안마 언어치료를 돕기 위한 후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드 병원 건립 모금을 위한 콘서트를 기획 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열방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수님께서 행하신 성경과 병 고침 사역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평한 항상 비해서 도저히 남을 도울 수 없을 것 같았던 저에게 내려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로 바빠진 제 삶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남을 돕는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Global Image Care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편집자 주. <월드뷰>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 관점을 소개하다보니 다소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본지가 특정한 입장을 선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WORLDVIEW COLUMN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의 일용할 지침서!
월드뷰가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 준비하다.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교사의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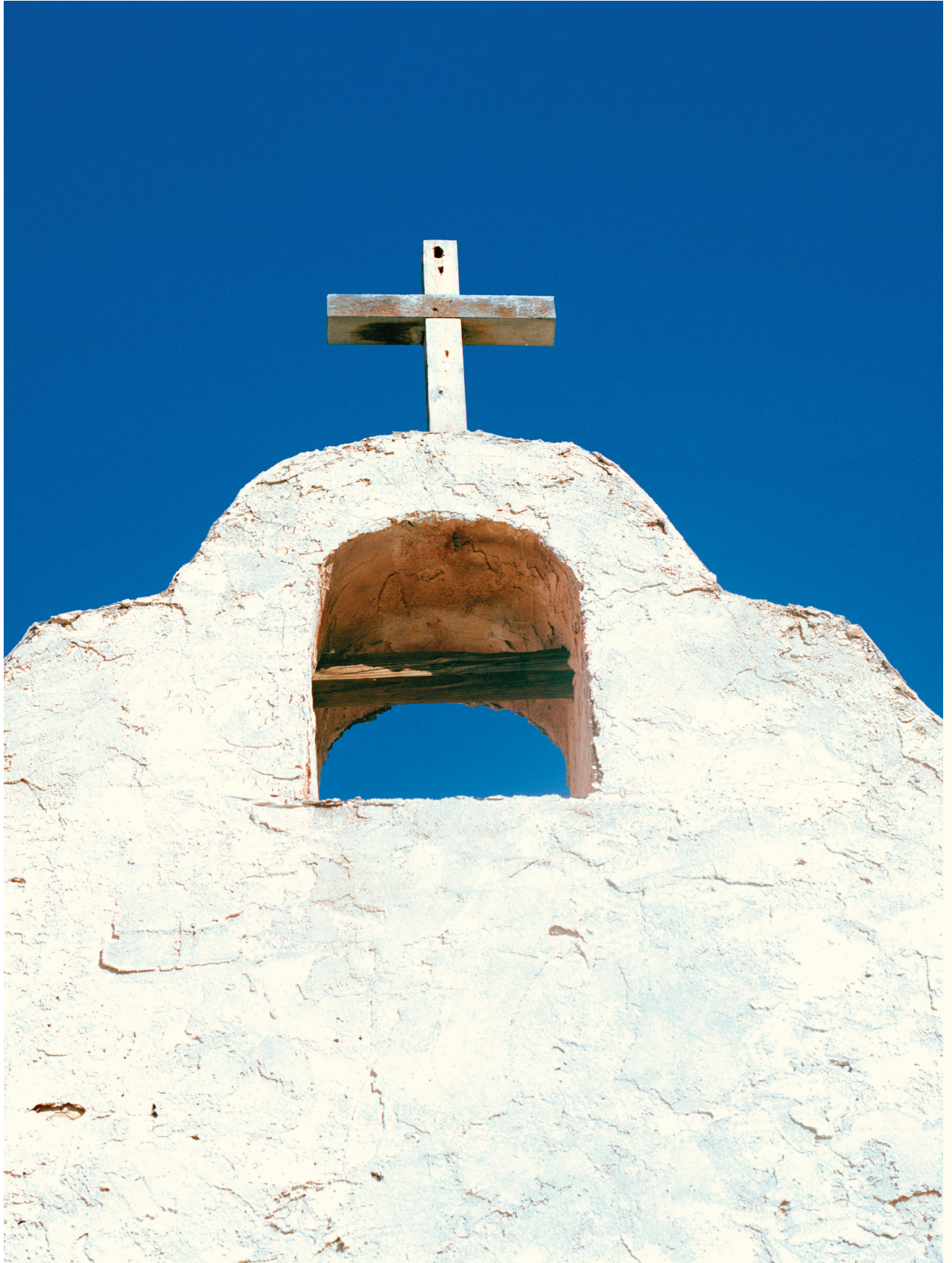
〈알버트 그린 박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스마트시대, 핫한 주일학교,

HOW TO. 주일학교

주일학교 미디어 정복기! 2탄!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새로운 학생들과 알콩달콩 관계 맺기를 시작한 지 한 달.
사랑하는 새싹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독교세계관학교 멘토 신국원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Q1. 교수님, 학생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요?

비전이 이끄는 삶

성경 속 비전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라보는 곳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깨어진 세상이 치유될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각각의 비전은 큰 그림의 일부였고, 그들의 삶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둘째, 비전의 사람들 중에는 대단한 영웅이 없습니다. 오히려 못나고 약한 “작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별로인 사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야곱은 악랄한 둘째였고, 요셉은 시진방진 “막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성질 급한 살인전과자였습니다.

비전을 따라 사는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성취됩니다. 교훈이 가득한 그들의 이야기는 동일한 길을 걷는 후대 사람들의 비전이 되었으며, 지금도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전이 인간적 자질이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비전이 이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약하고 약하기 때문인지 이 부분이 자주 눈에 띄니다. 성경 이야기는 비저나리(visionary)가 아니라 비전(vision)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의 비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Q2. 학생들이 성경을 어려워해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영적 시력과 안경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미 훌륭한 세계관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꼭 써야 할지를 두고 많이 고민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제목이 좋아서인지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읽고 도움이 되었다는 분도 많아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책을 마치고 30년 된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품어온 성경적 비전 전달이라는 사명을 조금이나마 수행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에 대한 비판적 평가나 조언도 여러 가지로 주어졌는데, 예상했던 한 가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Drama of Scripture)라는 책을 쓴 내 친구 마이클 고힌(M. Goheen)은 세계관 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탄했습니다.

고힌은 그 책들이 철학책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관이 이론이나 철학이 아님을 감안하면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흔히 창조, 타락, 구속으로 정리되는 기독교 세계관의 주제들은 역사 속에 실재했던 구체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마치 이 주제들이 교리나 이론처럼 비춰지거나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처럼 들려져야 제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

세계관 책이 철학책처럼 보이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의 비전을 딱딱한 이론으로 전

락시키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면서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사실 이것은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던 시절 세계관은 부담스러운 주제였습니다. 타 교회나 학교에서 특강을 하긴 쉬워도 정작 내가 늘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철학 강의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고, 안 그래도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성경공부가 아니라 토론장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예배나 성경공부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었지만, 세계관을 공부할 때는 누군가의 이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비판적이 되어 격론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른 저녁에 시작한 모임이 자정을 훌쩍 넘긴 적도 더러 있었습니다. 격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나 성경적 난제를 놓고 씨름을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논쟁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까지 하니 문제였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성경의 비전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소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해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베푸는 멘토링

교회를 담임하던 시절,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는지 설교하는 것으로 세계관 공부를 대신했습니다. 내 친구 마이클 고힌과 바르톨로뮤가 성경의 세계관을 드라마로 그려낸 방식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여러 개혁주의자들이 계속해온 일입니다. 네덜란드의 데흐라프(S. G. De Graff)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는 구속의 역사를 『언약과 성취』(Verbondsgeshiedenis)라는 방대한 책을 네 권으로 엮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듯 풀어 갑니다. 저도 그들을 본받아 가장 대표적인 비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데흐라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 연출하는 언약과 성취의 비전을 살아낸 주연들이며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계시와 비전을 드라마 각본처럼 받아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고도 열정적으로 해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족보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연급 이름만 전해집니다. 역대기에는 무려 10장이 넘어가도록 계속 이름만 나열되는데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같이 메마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부는 순간 살아나서 우리의 경기를 응원하는 증인들로 변합니다. 성경의 족보에 기록된 선조들의 삶은 우리를 이끌고 지도하는 멘토링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의 응원,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앞서간 성도들의 응원

성경의 족보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영화 끝 자막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국립묘지에 일렬로 늘어선 애국 선열들의 묘비명을 대하는 느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격려사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기를 경주하라.” (히 12:1)

우리의 위대한 멘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

저도 이와 비슷한 말로 유학 중인 제자를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감히 성경 말씀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께 힘이 될까 하여 편지 일부분을 옮겨 봅니다.

“힘들 때마다 주신 비전을 기억하며 기도로 견디거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란 없거든. 도약은 언제나 쉽지 않은 법이지.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눈을 높이, 멀리 향해 뜨고 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등실 떠올라 창공을 날고 있는 때가 오리라 믿는다.”

* 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계단공과 <생명의 빛>의 교사용 교재로 함께 제공됩니다. <월드뷰>를 통해 소개할 기회를 제공해주신 신국원 교수님과 총회교육부에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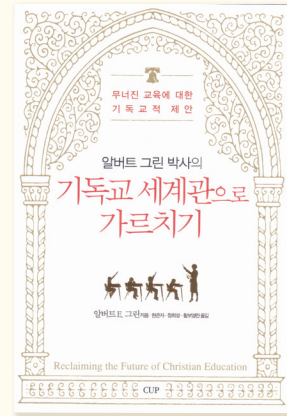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MP) 등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유희진 (인천계산교회 교육전도사)



알버트 E. 그린
현은자, 정희영 외 1명 | CUP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알게 모르게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등 사람은 보통 하루에 약 15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다양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결정을 이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따른 각자의 세계관에 근거한 확신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안경'에 비유할 수 있다. 파란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강계 보이듯이 인본주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볼 것이고, 물질주의자들은 세상을 생명이 없는 물질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섣불리 '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

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부끄러운 말을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섣불리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바로 이 책에서 그 고민과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알버트 그린 박사는 그 원인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기독교 세계관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신앙의 계보를 잇는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린 박사는 기독교교육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 교육자들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먼저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삶과 신앙의 이분법적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독교 세계관과 우리가 가르쳐야 할 참 지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학교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듯 책의 제목과 구성만으로는 다소 딱딱하고 무





거운 느낌이다. 그러나 만약 독자가 그 때문에 이 책을 손에서 놔버린다면 하나의 귀중한 보석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하기 바란다. 이 책의 매력은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사랑과 학습, 그리고 가르침의 환대 같은 신선한 내용은 교육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우선 기독교교육을 말하는데 있어 이론적 측면에만 그친 것이 아닌 일상 가운데서 특히 세속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독교교육의 실재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숭배하고 있는 여러 우상들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고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갖는 의문들(삶과 신앙의 분리, 교육의 홍수 속에 참 교육의 부재 등)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필자에게 충격에 가까운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준 것은, 이제껏 교육을 하면서도 가르침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지식이라고 떠들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가치중립이라는 가면 속에 세계와 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짓 지식을 실체도 모른 채 가르쳐왔던 것이다. 그래서 거짓 지식을 참지식인 줄 믿고 가르친 교육자로서의 무지가 나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약 3:1)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한껏 그 중함을 더했다.

이러한 모습이 비단 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독교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묻고 싶다. 특히 기독교교육의 주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묻고 싶다. 아마도 대부분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들의 책무를 규정지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라! 기독교교육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독교교육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 누리려는 자가 아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세대를 분별하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양육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을 실행하는 기독교교사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본서는 그러한 기독교교사가 되도록 하는 하나의 지침서이며,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교정서이자 도전을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독서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한 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가에 꽂아놓고 해를 거듭해서 여러 번 곱씹어 읽어야 그 가치와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기쁨을 누리듯 여러분 또한 읽을 때마다 새롭새록 깨달음의 기쁨과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길 바란다.



유희진

인천 계산교회 교육전도사로, 현재 총신대학교 기독교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다.





주일학교, 미디어 정복기!

2 편 최신 스마트 폰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정체성을 찾는 세대를
기대하며!

◎ 김희경 (사단법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사무국장)





오랜만에 아이들 앞에 섰다. 미래에 대한 꿈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전을 줄까' 설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실로 향했다. '주님, 오늘도 당신께서 비전을 두고 계신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자신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눈앞에 펼쳐진 30명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 고개조차 들지 않는 아이, 아예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아이, 큼지막한 거울을 꺼내 들고 화장을 하는 아이까지...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한참이 걸렸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맞나? 우리 학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어떻게 강의를 마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마다, 지역마다 약간씩의 편차는 있다. 모든 아이들이 강의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도 강의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집중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그랬다. 사실 우리 센터의 강의는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탁월한 편으로 처음부터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그 자리에서 카카오톡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달랐다. 대략 5~6명 정도만 고개를 들고 집중했다. 가끔 힐끗거리며 보는 아이들도 있었으나 결코 하던 일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담임 선생님이 함께 있었지만 신경조차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갑자기 일어나 돌아다니는 아이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안”과 상업성

이것은 지난 12월에 방문한 모 고등학교 1,2학년 4개 교실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동행했던 동료가 강의한 교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담임 선생님의 따르면 그나마 아이들이 많이 집중한 편이라고 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으로 귀가했다. 한 달 후 중학교 교사인 동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현재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된 후 스마트폰을 수거할 수 없어 벌어진 급작스런 현실이라며 한 학생과 스마트폰 압수 문제로 옥신각신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전해 주었다.

‘인권’이라는 좋은 말에 자본이 ‘선택권/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며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쥌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선택권이 아이들의 기본권인 ‘학습권’을 빼앗는데도 그 권리를 마땅히 지켜야 할 학교에서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백 번 양보해서 선택권을 존중한다 치자. 그러나 과연 상업성 앞에 진정한 선택권이 있을까? 연신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최고의 스타를 동원해 모든 매체를 통해 ‘스마트폰 소비’, ‘게임 소비’를 강요하는 그 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더욱이 놀이다운 놀이는 사라져가고 온갖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를 한 몸에 떠안고 있는 이 아이들이 말이다.

부모가 상업성으로부터 지켜야

오래전 우리나라와 독일의 청소년 보호법을 비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다. 우리나라의 법이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상업성’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는 데 핵심을 두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누구도 상업성 앞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게임 결제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도록 ‘결제 수단’을 통제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편리함’을 이유로 수많은 결제 수단을 두고 부모 몰래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묵인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결제 수단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게임 회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에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소위 ‘캐시 충전’을 하계끔 게임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실상 아이들이 중독될수록 이들에게는 이득인 셈이다. 수십억이 투자된 소위 성공한 게임들, 누군가 열심히 캐시 충전을 해주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들이 게임을 어떻게 만들겠는가?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이 왜 그렇게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중독적인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이러한데도 누구도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아이들도 고통스러워 누군가 자신을 통제해주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르도록 국가는 물론 가정, 학교, 교회도 무기력한 상황이다. ‘너희들의 문제’, ‘요즘 애들의 문제’로 치부하며 고개를 흔들 뿐이다. 국가는 게임 산업을 돈 많이 버는 효자 산업이라 하며 부작용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교육부조차도 글로벌 인재 운운하며 업계의 요구에 발맞추어 ‘스마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아이들이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속상해하는 부모들과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에 빠져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와 교사,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겠는가. 언제까지 ‘요즘 애들’을 탓하며 특정 아이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말겠는





가. 더는 아이들을 산업의 역군으로 내몰 수만은 없지 않은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심지어 죽음을 노래하는 게임과 음악들로 그들의 눈과 귀, 그 심령을 채우게 할 것인가.

**남들이 다 갖는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됨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영성을 길러줘야**

이제는 '미처 몰랐다'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녀들" (말 2:15)로 만들라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적어도 주일학교에서만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집착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남들 다 갖는 최

신 스마트폰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길러 줘야 할 때가 되었다. 더불어 각 가정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미디어 금식' 등 교회 차원의 미디어 절제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나아가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과도한 탐욕으로 '돈벌이'에 급급한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 등 이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김희경 현재 사단법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자녀들이 오랜 노력 끝에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해방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였고, 그 경험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교육'에 녹여 강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과학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리진: 창조, 진화, 지적 설계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들』

유건호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데보라 하스마, 로렌 하스마 공저
한국기독교과학자회 역 | IVP

이 책의 저자는 과학자, 그 중에서도 정밀과학이라 일컬어지는 물리학을 전공한 학자들이다. 아내 Deborah B. Haarsma는 MIT에서 천체물리학으로, 남편 Loren D. Haarsma는 Harvard에서 원자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둘 다 Calvin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Loren은 5년의 박사후과정 동안 신경과학을 연구하기도 했다. 둘 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젊은 지구 창조론’을 배웠고, 학교에서는 훨씬 오래된 지구와 생물의 진화를 배웠다. 이들은 다행히도 자신들의 믿음과 과학을 통합시켜 나갔지만, Deborah는 지적으로는 ‘오래된 지구론’을 받아들이고도 한 동안 정서적으로는 예배에 어려움을 느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저자들과 달리 교회와 학교의 가르침 사이에서 당황하고 좌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학자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종교와 과학의 대립 양상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인상을 주어 복음의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저자들은 과학을 이용하여 종교를 깎아내리려는 무신론자들과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거부하는 종교인들에게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모순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종교와 과학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서로 조화되고 보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독교와 과학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노력들을 검토하는 것을 이 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과 일반 계시인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두 권의 책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해석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해석인 과학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성경 해석에 상호 영향을 끼치는 신학 및 교회 전통, 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 및 정치가 이런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저자들은 과학과 종교 갈등이 현저하게 드러난 갈릴레오 재판 사건을 분석한다. 그들은 이 사건이 성경 저자의 의도에서 빚나간 성경 해석, 갈릴레오의 오만한 성격,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

을 지키려했던 교회의 방어적 태도, 교황의 반감 등이 한데 얹힌 것으로, 자연과 성경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들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성경 해석과 과학이 갈등을 일으키면, 먼저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었는지, 과학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살피고, 그 갈등의 배후에 시대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저자들은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의 원 저자가 그 당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과학에 대해서는 실험, 관찰, 역사적 방법을 통해 신뢰할 만한 지식을 얻으며, 재현성, 확인 가능한 예측, 동료의 검증이나 다른 종류의 실험에 의한 교차 검증 등 '자기 교정'의 과정을 통해 신뢰성을 얻는다고 말한다. 또한 과학은 많은 지식 중 하나에 불과하며, 과학만이 믿을 만한 지식 획득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환원주의적 무신론적 세계관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책은 '기원' 곧 우주, 지구, 생물, 그리고 인간의 기원을 다룬다. 이 네 가지 기원에 대하여 다양한 성경 해석을 제시하고 그것들의 장단점과 상호 관계 등을 검토하며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들을 설명한다. 이 책은 마치 백과사전 같아서 이런 주제에 관해 지금까지 어떤 견해들이 있었는지를 개괄해 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전체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데 유용할 것이다. 네 가지 기원에 대한 견해들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는 '젊은 지구 창조론'과 오랜 지구론에 속하는 '진화론적 창조론'과 '점진론적 창조론'을 들 수 있으며, 부제인 '창조, 진화, 지적 설계'는 각각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자들의 저서답게 이 책은 매우 신중하게 쓰여 있다.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일례로 '진화'라는 말은 소진화, 시간에 따른 변화 패턴, 공통 조상, 진화론, 진화주의 등 다섯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 중 앞의 네 가지는 과학적 사실 혹은 과학적 모델이지만, 진화주의는 창조자 없이 인간이 자연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목적이나 도덕성의 절대 기준도 없다는 세계관적 신념이므로 성경과는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저자들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나열하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해석할 때 실제 창조 순서가 창세기 1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일치론적 해석과 그렇지 않다는 비일치론적 해석이 있는데, 일치론적 해석에는 젊은 지구론, 간격이론, 날-시대론, 성숙한 모습으로의 창조론 등이 있고, 비일치론적인 해석에는 선언일, 창조시, 왕국-언약, 성전, 고대 근동 우주론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 필요에 따라 도식이나 도표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각각의 기원에 대해 저자들이 어떤 견해를 선호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137억 년 전 하나의 시작점으로부터 출발했다는 빅뱅 모델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우주의 팽창, 우주 배경 복사, 우주 속의 헬륨의 양 등을 제시한다. 지구의 나이는 최소 1만 년 이상인데, 그 증거로는 대륙의 이동, 빙하





층의 분석,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 등을 든다. 동식물은 공통 조상에서 진화하였는데, 화석 증거, 비교해부학적 증거, 생물지리학적 증거, 유전학적 증거 등이 이를 뒷받침하며, 유전학적으로는 인간도 생물학적으로는 동물과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런 견해들이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저자들은 기원에 대해 하나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권의 책 중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한다.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의견 차이를 좁힐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길 당부한다. 이 책의 매 장 끝에는 성찰 및 토론을 위한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고, 책의 끝에는 상당한 양의 참고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서론에서 이 책을 스터디 그룹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는데, 이 책은 아마도 그렇게 그룹 스터디를 했을 미국 내 한국기독교과학자회에서 번역하였다. 전체적으로 어색한 부분 없이 잘 번역되었으며 전문 용어에는 친절하게 적절한 역주도 달려 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성경에서 자연이 보통 찬양하고 예배하는 문맥에서 등장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성경 해석의 두 번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창세기는 언제,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이라기보다 누가, 왜 창조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이라고 본다. 그리스도인은 과학을 대할 때 언제, 어떻게의 부차적인 문제에 대한 과학



과 신학의 갈등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과학의 발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떠올려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과학이 설명하는 영역에서 설 자리를 잃는 '틈새의 신'이 아니고, 자연 법칙이 성립하도록 붙드셔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기자가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였듯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계성운(Crab Nebula)의 장엄한 모습과 현미경을 통해 보이는 세포의 오묘함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유건호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MIT에서 반도체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Bellcore의 연구원을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로 봉사하였다.





13. 1. 27. □□ 8:24

우리가 함께 합니다.

사단법인

이 사 장 : 손봉호(고신대)*
 부이사장 : 김의원(백석대)*, 양인평(로고스법무법인)*, 오정현(사랑의교회)
 이 사 : 박상운(샘병원)*, 양승훈(VIEW), 원동연(한국종합과학연구원)*,
 이강인(엘비전 대표), 이인웅(삼성전자 부사장), 전광식(고신대)*, 조정민(CGN TV),
 조민재(국민일보), 한정화(한양대)*
 공동회장 : 김성수(고신대 총장), 김승욱(중앙대)*, 유정철(경희대)*, 조성표(경북대)*
 감 사 : 김승태(에듀커뮤니케이션), 김원수(패션그룹 형식) 가나다 순 / * 등기이사

실행위원회

위 원 장 : 김승욱(중앙대)
 위 원 : 김승태(에듀커뮤니케이션), 김원수(패션그룹형식), 김태환(명지대),
 김혜정(CUP), 신국원(충신대), 유경상(CTC), 유정철(경희대), 이진창(성균관대),
 조성표(경북대), 정희영(충신대), 차명실(재정 실무 담당), 최태연(백석대),
 최현일(샘여성병원), 한운식(한동대)

후원위원회

위 원 장 : 김원수(패션그룹 형식) 교회담당 : 강춘근(한국성결교회)

세계관운동

지역관리위원회_박신현(고신대), 조창근(조선대), 교재개발위원회_최태연(백석대),
 대외협력위원회_김승태(에듀커뮤니케이션), 언론위원회_강진구(고신대),
 중장기발전위원회_정수균(선교사), 중보기도팀_유해신(좋은교회), 인터넷위원회_권오병(경희대),
 대학청년위원회_한운식(한동대), 장갑덕(대전과학원교회), 이선일(울산산광교회)
 세계관목회자포럼_김갑덕(강남교회), 생백영(반포침례교회), 장갑덕(대전과학원교회)

월간 월드뷰

대표주간 : 손봉호(고신대), 발행인 : 김승욱(중앙대)

도서출판 CUP

대 표 : 김혜정 마케팅 실장 : 윤여근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 정희영(충신대)
 부학회장 : 국제협력_김종락(경북대), 대외협력_박문식(한남대), 학술_김태환(명지대),
 연구_유재봉(성균관대)
 감 사 : 김상득(경북대), 신현호(백석대)
 이 사 : 강영안(서강대), 김홍섭(인천시립대), 권태경(충신대), 윤완철(카이스트),
 장수영(포항공대), 조무성(고려대), 황호천(세종대) 외 12인
 분과학회장 : 철학_양성만(우석대), 경제/경영_황의사(서울시립대), 문화/예술_송태현(이화여대),
 정치/외교_백승현(경희대), 교육_김정호(이화여대), 법학_이국운(한동대),
 역사_권태경(충신대), 상담/심리_전요섭(성결대), 문학_정정호(중앙대),
 의학_최현일(샘여성병원), 사회복지_양태원(충신대)

편집위원회

위 원 장 : 이진창(성균관대)
 편집위원 : 계영희(고신대), 권정태(홍서대), 김경민(전남대), 김동원(전북대), 김정호(국립한림대),
 배용수(성균관대), 박신원(고신대), 신현호(백석대), 유지환(광동대), 이의영(군산대),
 조창근(조선대), 현창기(한동대)

세계관연구소

소 장 : 조성표(경북대) 부 소 장 : 김홍섭(인천대)

세계관아카데미

소 장 : 신국원(충신대), 부소장 : 이승구(합동신대원대)
 미디어아카데미원장 : 조정민(CGN-TV)
 운영위원 : 강진구(고신대), 안종배(한세대), 임춘택(경남대), 유지은(PD), 장유진(미교필름)

VIEW

원 장 : 양승훈(VIEW)
 이 사 : 조영택(뱅크버 코스타 이사장), 박신일(그레이트스 한인교회 목사),
 김명준(뱅크버 지구촌교회 목사), 김주영(신세계보험)

CTC

대 표 : 유경상 팀 장 : 한부익, 안성희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 사 회

실행위원회

후원위원회

사 무 국

목표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사회의 변화 추구



연구

- 기독교학문연구회 (KCSI)
 분과 : 철학/ 법학/ 의학/ 교육/ 역사/ 자연과학/ 사회복지/
 경영 · 경제/ 정치 · 외교/ 상담 · 심리/ 예술 · 문화
- 학술지 신앙과학문 (FAITH & SCHOLARSHIP)
- 세계관연구소 (INSTITUTE)

운동

- 세계관운동 (DEW)
 위원회 : 지역관리/ 교재개발/ 대외협력/ 중장기발전/
 대학 · 청년/ 언론/ 인터넷/ 목회자/ 중보기도
-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 월드뷰 (WORLDVIEW)
- 도서출판 CUP

교육

- 세계관아카데미 (ACADEMY)
 아카데미 : 기독교미디어/ 교사/ 교수/ 목회자
- 벤쿠버 세계관대학원 VIEW
- 청소년사역 CTC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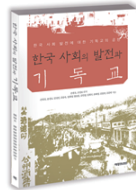
기독교학문연구회(KACS,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기독교학문연구회는 기독교적 학문 연구를 위한 학회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춘계, 추계 연 2회의 학술대회 개최.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 발행.

세계관 연구소(Institute)

-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연구과제 발굴 및 진행 : 융합과제
- 2012년 연구과제:한국사회의 발전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각각의 분야로 분석, 연구/ 지난 7월 발행



운동

월간 월드뷰 발행(WORLDVIEW)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영역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보기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신간 서평 안내

세계관 운동(DEW, Disciples with Evangelical Worldview)

성경적 삶의 적응을 위한 활동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독교적 대안이 사회에 실천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신문, 방송, TV, 인터넷, SNS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한 영향력 확산
- 각 지역의 교회, 대학들과 연계하여 세계관 교육 확산

출판사(CUP, Christian University Press) 운영

바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전인적으로 조화된 균형 잡힌 도서를 출판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생각과 학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문화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세계관아카데미(Academy)

-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시
- 교수, 교사, 목회자, 언론인 등 전문 직종별 아카데미 운영 (현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중)

세계관 대학원(VIEW,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 현재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MACS) · 디플로마(Diploma) 과정 운영
- 기독교 역사상 종합대학에서 수여하는 첫 세계관 대학원 학위
- ATS(북미주신학협회의)가 학위를 인정하는 북미주 최고의 프로그램

크리스천싱킹센터(CTC, Christian Thinking Center)

-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동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에 건강한 문화로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여 주십시오.

회원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시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전화문의 사무국 대표전화 02) 754-8004

이 메 일 info@worldview.or.kr

후원계좌 국민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MS신청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WORLDVIEW



CMCA 60시간 영화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8기 영상캠프 후기

📍 박혜경 (CMCA 5기 졸업생)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서는 기수마다 개인별 영상에서부터 조별 영상, 뉴스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제작한다. 마지막 과제인 졸업 작품을 만들기 전에 3박 4일의 영상캠프를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3박 4일의 시간으로 학생들은 실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작업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번 영상캠프는 고신대학교 컴퓨터영상선교학과와 함께 60시간 영화제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전과의 차별화 되었다. 크리스마스 직후, 지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진행된 60시간 영화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제작물 중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
〈대사, 인물(주인공), 소품〉
- **주제**: **십자가**
- **인물**: 최진영(남) 또는 최지영(여)
- **대사(말씀)**: 눅 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 **소품**: (모든 형태의) 십자가

5분 이상 8분 이내의 영상물 제작으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CMCA) 8기 학생과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학생, 총 40명이 참석하였다.



고신대 부총장이신 이상규 교수님의 설교로 개회예배가 진행되었고 이어 이번 영상캠프의 주제설명 및 제작에 대한 유지는 PD님의 강의가 있었다. 주제인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영상으로 나타낼것인지를 설명하고, 제비뽑기로 각 조의 주제 계명을 정했다.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각 조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깊이 토론하고 기획안을 구성하여 촬영에 임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영상실무와 더불어 기독교세계관을 교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영상캠프 프로그램에도 세계관 강의가 빠지지 않는다. 이번 영상캠프에서는 최태연 교수님의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이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하여 기독교인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구 교수님은 짧은 시간에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2~3분내에 정리하는 새로운 묵상방법을 소개하셨다. 이 방법은 시간이 부족할 때에도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번 영상캠프에서 매일아침 실시되었다. 아침 묵상이 끝나면 기미아 졸업생인 고 집사님이 준비해 주신 토스트로 아침을 먹었다.

기획안이 확정된 후, 셋째 날부터 조별로 촬영에 들어갔다. 장비들을 완전히 갖춘 조도 있었고, 촬영장소를 섭외하거나 세트장을 만든 조도 있었다. 저녁까지 분주하게 촬영을 마치고 부산의 명소 중 하나인 남포동에서 저녁을 먹었다.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낯선 부산의 변화가에서의 트리축제와 저녁식사는 60시간 영화제의 긴장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얻은 시간이었다. 식사 후 각 조는 다시 촬영하기도 하고, 촬영 테이블을 캡처하기도 하는 등 영상제작에 집중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촬영과 편집을 마치고 강평회가 시작되었다.

시사회는 강진구 교수님, 유지는 PD님, 장유진 PD님의 심사로 진행되었고, 고신대학교에서 주최, 후원하여 주신 덕에 시상식도 가졌다.

시사회와 시상식 후 폐회예배를 드림으로 영상캠프의 일정은 끝났다.

학생들은 캠프를 통해서 영상은 정직하게 수고한 만큼 드러난다는 것과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과 사명에 충분히 수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강진구 교수님은 폐회예배를 통해 영화는 상업성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만드는 작품은 소통을 염두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60시간 영화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영상캠프 작품 소개

최우수상

- 계명 : 4계명
- 제목 : 이 부부의 사는 법
- 소속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 시놉시스



: 아내과 최진영(남편)은 신혼 6개월차 주말 부부이다. 주말밖에 만날 수 없는 애뜻한 상황. 부부는 매일 새벽 전화하고 만날 날을 고대하며 만남을 소중히 이어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인인 지영은 바쁜 일정 중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주말조차 귀찮아져버린다. 일상에 치여 점점 만남의 의미를 잃어가는 지영. 남편은 관계가 소원해짐을 느끼며 서운해한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만남으로써 힘을 얻고 충전해오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의무적이고 냉랭한 일요일이 되어간다. 결국 식어버린 지영의 모습에 화가 난 남편. 둘의 다툼은 거세어져 가는데...

우수상

- 계명 : 8계명
- 제목 : It's Mine
- 소속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 시놉시스



: 최진영(18, 남)은 만년 전교 꼴등이다. 집도 가난하고 가진 재능도 없다.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이 항상 억울하다. 머리로만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자꾸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남 부럽지 않게 한 번 살아보고 싶다. 어느 날때와



같이 오늘도 아버지의 지긋지긋한 잔소리를 피해서 집을 뛰쳐나왔다. 그런데 시장통 어둡한 골목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 남자에게 다가서자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 반지”를 받게 되는데...

우수상

- 계명 : 3계명
- 제목 :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회 옴빠
- 소속 : 고신대
- 시놉시스



: 교회에서 선망의 대상인 진영. 그는 찬양인도자이자 교회를 섬기는 회장으로서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그는 자신이 앞에서 기타를 치며 인도할 때 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자신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을 알고 신실한 모습과 성경말씀들로 그들을 어장관리 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매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다며 슬쩍 스킨십을 하고 성경공부를 하자며 자매를 카페로 불러 성경공부는 뒷전,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작업을 건다. 작업이 끝난 뒤 시간별로 자매들과 성경공부를 가정한 데이트를 약속한다. 그의 어장관리가 과연 지속될까?

관객상

- 계명 : 6계명
- 제목 : 가위
- 소속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 시놉시스



: 대학생인 최지영은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어서 평소 친구들과 과도 원만하게 지내지만, 음식 먹는 것을 친구보다 더 좋아한다. 어느 날, 지영의 단짝 조금순이 지영의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는다. 지영은 단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금순이의 다른 행동들까지도 거슬리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금순이는 지영이의 라면을 뺏어 먹고, 지영은 마음 속으로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금순이는 지영이가 젤 싫어하는 행동인 면을 끊었고, 속으로 '먹다가 목에나 걸려서 뒤흔다' 했는데, 면이 금순이의 목에 걸렸다. 자신의 생각이 현실이 되자 당황한 지영은 금순이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하지만...

연기상

- 계명 : 5계명
- 제목 :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소속 : 고신대
- 시놉시스



: 함께 모여 서로의 부모님의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인인 장봉에게 중국에는 부모공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 장봉은 중국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국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한다. 장봉의 이야기를 듣던 치근이는 한국에는 심청이라는 효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에도 부모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지 묻는다. 장봉은 우물쭈물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말씀활용상

- 계명 : 1계명
- 제목 : O.M.G (Oh My GOD)
- 소속 : 고신대
- 시놉시스



: 진영이는 카라팬이다. 일요일 아침. 실컷 자고난 진영은 눈을 비비며 모자를 쓰고 츄리닝을 입은 채로 책상 한구석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향한다. 졸고 있던 진영은 진동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 카라 콘서트 예매 시작 한 시간 전이라는 알람메세지가 뜬다. 진영은 예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뜬다. 급하게 집에 들어선 진영은 경건한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초 긴장상태로 크게 심호흡을 한다. 티켓팅에 성공한 진영은 펄쩍 뛰어오르며 기뻐한다. 그때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고 교회 친구초청예배 일정과 콘서트가 겹침을 알게 된다. 하지만 카라 콘서트에 가기 위한 달 동안 준비했던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결국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소품활용상

- 계명 : 9계명
- 제목 : 상처
- 소속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 시놉시스



: 민경과 철수는 오랜 연인이다. 민경은 우연히 철수와 지영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된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민경은 주위사람들에게 지영은 모함하는 말들을 하고, 이로 인해 힘들어하던 지영은 급격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 본 영상은 본 단체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 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



2013년 신년부터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 하였습니다. 이번 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는 직장 속에서, 혹은 사업 가운데, 나의 학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점검되어야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에 세상 속에 사는 오늘을 반추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점검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상기 강사진은 대상에 따라 매 기수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추후 하반기에 2기 아카데미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이 외에 시사별(주제별) 기독교세계관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1기 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

- 대상: 전문인, 경영인 대상
- 기간: 2013년 1월 12일(토) ~ 2월 16일(토)
- 시간: 오후 4시~9시 (총 20시간)
- 교육장소: 역삼동 한신인터밸리 24 동관 6층 (8S 법무법인)
- 강사: 신국원 교수(총신대), 김승욱 교수(중앙대),
한정화 교수(한양대), 장수영 교수(포항공대),
우중학 교수(서울대), 조영길 변호사(8S법무법인)
- 수강료: 30만원 (교재비, 식사비 포함)
- 문의: 02-754-8004 (사무국)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9기 모집! 지금부터 신청 받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 양성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첫발을 내딛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9기를 모집합니다. 한쪽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다른 한쪽으로는 미디어 실기 수업을 통해 1인 미디어 시대에 기독교미디어 일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격 및 모집 일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격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세례교인, 75년 이후 출생자)

접수 방법

1. 서류전형 cmca.or.kr 접속 후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2. 면접 서류전형 통과자 대상으로 심층 면접 실시
 - 서류접수 : 2013년 3월 22일(금)까지
 - 면접일시 : 3월 29일(금)~30일(토)
 - 기 간 : 2013년 4월 6일(토)~8월 3일(토) (예정)
 -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00~6:00
 - 수업장소 : 서울국제크리스천 아카데미 (양재동)
3. 문 의 02-754-8004 (담당: 홍정석 간사)

WORLDVIEW NEWS

2013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총회 개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13년 정기총회가 교총회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새로운교회)에서 1월 28일(월)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또 1월 21일(월)에는 실행위원회 회의가, 28일(월) 정오에는 이사회의가 실시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한 사역보고와 2013년 신규 임원을 임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 참석해 주시고 동역회의 차역을 격려해주신 많은 회원들과 내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총회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주신 새로운교회 한홍 담임목사님과 이사회를 위해 장소를 협찬하신 엘비전 대표 이강인 이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과 학문 18권 1호를 모집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의 논문 투고를 받습니다. 18권 1호의 발행일은 2013년 3월 31일이며 상시투고로 진행됩니다. 학문에 관심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투고시 아래의 메일로 투고신청서와 투고논문을 보내주십시오.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사무국) 02-3272-4967

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 개강

전문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3년 기독교세계관아카데미가 개강하였습니다. 기간은 2013년 1월 12일(토)부터 2월 16일(토)까지 오후 4~9시, 총 20시간 실시합니다. 지속적으로 아카데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무국) 02-754-8004

독자후기 모집

<월드뷰>에 대한 독자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사무국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후기 제출은 아래의 이메일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와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대표메일
info@worldview.or.kr

2013년 신규회원 초청의 날

2013년을 맞이하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기독교세계관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홀수 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회원님들의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세계관을 도어나 <월드뷰>로만 접하신 분들의 갈증을 풀어드리자,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준비된 기독교세계관 강의와 같은 뜻, 같은 궁금증으로 고민하시던 분들과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1월 17일(목)에 1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용산 사무국에서 진행된 1차 모임은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총신대학교 신국원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시고, 본동역회 감사이자 패션그룹 형지 고문이신 김원수 교수님께서 <서번트리더십과 양떼프레넨십 사례>를 나눠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석하신 분들과 식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있으신 동역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간 동역회 초청의 날 강의주제]

날짜	주제
1월 17일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3월 14일	기독교세계관, 사회를 말하다(기독교시민)
5월 16일	청년들의 기독교세계관
7월 18일	교회, 선교를 말하다
9월 12일	교회, 기독교세계관의 안경을 써라
11월 14일	가정에서의 기독교세계관의 역할

※ 모임 참석시 참가비가 있습니다. (참가비 1만원/ 저녁식사 제공)



월드뷰 2013년 2월호를 읽으면 모두가 **빙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 info@worldview.or.kr 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5분께는 월드뷰가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NEI에서 후원하는 친환경 장바구니,
에코백을 선착순 3분께 드립니다.

NEI는 Nutrition and Education International의 약자로 영양을 공급하고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국제 NGO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속 가능한 자조자립형 공 산업 개발을 통해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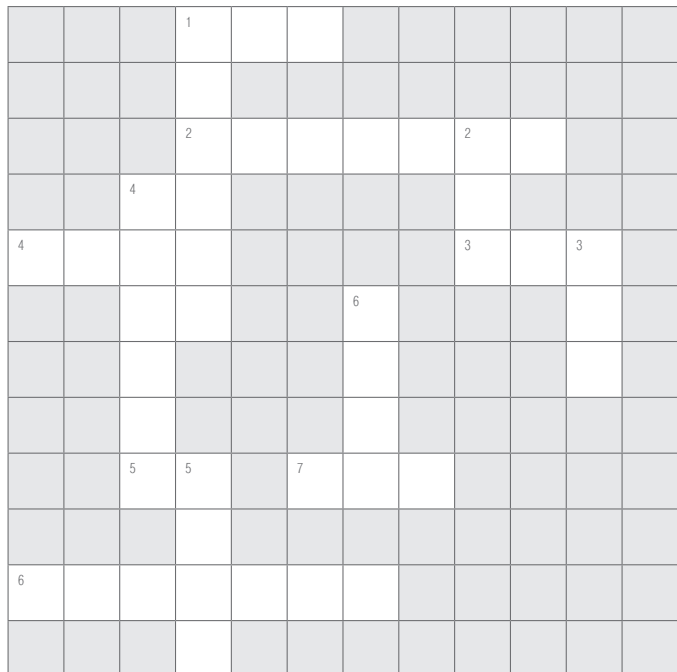


가로

- 장기려 선생이 수상한 막사아사아상은 ○○○의 노벨상이라 불리운다.
-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교육이념에 따라서 근로·봉사·희생의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구국·농민운동의 목표 아래 창설된 사회교육기관.
-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치는 장막.
- 그리스어. 자기를 비우는 것.
-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보존 기록을 더 이상 소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원래 기관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기록관에 보내거나 폐기하는 것(deaccessioning).
- 정부가 실시한 의료보험제도보다 10년이나 앞선 순수 민간단체 주도의 의료보험.
- 영어. 기원, 근원.

세로

- 아시아 서남부 이란 고원의 동북부에 있는 나라. 1919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73년에 공화제가 되었다. 중국의 원조로 첨단시설의 병원이 설립되었다.
- 대학교를 졸업할 때 쓰는 모자. 검은색이며 네모난 모양에 같은 색의 술이 달렸다.
-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박애정신에 기반을 두고 간질병 환자의 진료, 계몽 및 선교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가 고신대학교와 함께 실시한 영화제.
- 의료선교에 성육신의 원리로 적정기술을 접목하면 그것은 ○○○○의 모습.
- 태국에서 기원한 이야기로 귀찮게 하는 신하에게 주는 선물.



월드뷰가 후원과 광고를 모십니다!

〈월드뷰〉는 회원분들의 후원과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에게 전달되며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기관 및 단체 후원을 받습니다.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립니다.

광고접수 문의 (대표전화) 02-754-8004 / 담당 : 김고운 간사

이메일 info@worldview.or.kr



월드뷰 독자후기

매월 한 주제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부분들, 그리고 표지에 그 달의 주제를 안내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 좋은 책들을 소개해주는 것들도 좋고요. 지난 10월 월드뷰 소개해주신 '살로 메이슨의 살아있는 교육' 시리즈는 와이프와 함께 꼭 읽어보고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월드뷰 앞 부분에서 코너스톤대학교의 릭 오스트랜더 학장님과 인터뷰와 함께 모교인 한동대학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들이 참 반가웠습니다. 학문과 신앙의 통합. 한동대 입학해 처음으로 들었던 그 말이 1학년인 저를 설레게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학년 때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통해서 세계관에 관한 책들을 여러 접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기독교적 세계관과 학문에 대해 배우지 못한 저에게, 그리고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릭 오스트랜더 학장님이 말씀하신 채플, 성경공부, 단기 선교는 영적이며, 거룩한 주님의 일이지만 전공 공부와 강의, 직업 준비는 세속적이며 하등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너무나 친숙한 것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대학교 시절을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지만, 언제나 그곳에서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학생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면 간사나, 선교사의 길 뿐이라고 은연중에 강요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길이 더 많지만 코너스톤대학교와 같은 곳이 있다면 교수가 되어 꼭 가고 싶다면 소망도 품게 됩니다.

돈, 그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건 역시 릭 오스트랜더 학장님의 강연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분께 한치라도 속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선포하신다는 아브람 카이퍼의 고백.

익숙했던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제 안에 자리매김하려고 할 때마다 되돌아보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윤재 교수님의 '교회, 돈을 어떻게 쓸까?'에서 오늘 날 강조하는 개별경제를 'meconomy', 성경에서 강조하는 경제공동체를 'weconomy'로 명명하는 부분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께서도 혼자 공생애를 보내시지 않고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열시 받고, 버림 받은 병자와 창녀, 범죄자들을 함께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지내시던 모습들을 보여주셨네요.

또 서로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돕고 도왔던 초대 교회의 모습들 역시 경제공동체의 원형이 되는 것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의미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만하더라도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생활방식에 익숙해져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본적이 없었으니까요.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경제 공동체적 삶,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기업들이 기업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가능하도록 정당화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쌍용차 같은 경우 지금까지 23명의 남편이자 아빠인, 가장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성경적인 경제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고 제 안에서 멀어져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정의 생명과 그 가족의 생계보다 기업의 이윤(돈)을 더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 행위들을 뒷받침해주는 경제 이론들과 경영 마인드들이 천하보다 귀하게 한 생명을 바라보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정신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짧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정치나, 과학&기술 같은 주제들을 다루주시거나, 이번 12월의 부부클리닉 관련 글에서처럼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것을 유도해내고, 고정시켜버리는 사회구조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과 고민들도 함께 담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도 좋은 주제와 내용들로 월드뷰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새롭게 시작될 월드뷰도 응원합니다!

짧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정치나, 과학&기술 같은 주제들을 다루주시거나, 이번 12월의 부부클리닉 관련 글에서처럼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것을 유도해내고, 고정시켜버리는 사회구조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과 고민들도 함께 담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도 좋은 주제와 내용들로 월드뷰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새롭게 시작될 월드뷰도 응원합니다.

〈월드뷰〉 독자후기를 남겨주신 광주광역시 김창현 님께는 본 동역회 초대이사장이신 대천덕 신부님의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을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과잉친절

몸집이 작은 남자 하나가 급행열차의 한 객실로 들어와서는
“이를 어찌지! 이를 어찌지!”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었다.
다른 승객들이 뭐가 문제냐고 물었다. 그는 다음 역에 내려야
하는데 거기서 내리려면 완행열차를 타야 하는데 그만 실수로
그 역에는 서지 않는 급행열차를 타버렸다는 것이다.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다음 역에 꼭 내려야 하는데 야단났다는
걱정했다. 건장한 승객 하나가 한참 생각하다가
“내게 좋은 수가 있소. 급행열차라도 역으로 지나갈 때는
속도를 조금 늦춘다고 하오. 그때 내가 창문을 열고 당신
목덜미를 잡고 당신을 플랫폼으로 서서히 내려 줄 테니 발이
플랫폼에 닿자마자 기차 가는 방향으로 한참 뛰다가 멈추면 돼요”
하고 제안했다. 모든 승객들이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고
그 좋은 생각은 차질 없이 실행되었다.
그 일을 해낸 승객은 오랜만에 좋은 일 하나 한 것에
크게 만족했고 다른 승객도 모두 축하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조금 후에 그 작은 승객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기차 칸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예. 선생님이 시킨 대로 내 발이 플랫폼에
닿자마자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었지요.
그런데 저 뒤 칸에 있던 어떤 덩치 큰 녀석이 내가 기차를
타려고 뛰는 줄 알고 그 망할 놈의 긴 팔을 창밖으로 내뻗어
내 목덜미를 잡아 기차 안으로 끌어 올려 버린 거요.
그 녀석 괜히 잘난 척해서 나만 망했다고요!”



I See WORLDVIEW

월드뷰를 더욱 스마트하게 애용하는 법!

당신에게 맞는 월드뷰 사용법!

매번 문자를 열어 월드뷰를 볼 필요가 없어요!



Yes



No, but



No



인터넷으로 신문을 본다

내 블로그나 SNS에
월드뷰의 칼럼을
링크하고 싶다.

블로그 링크
<http://blog.naver.com/cworldview>
네이버에 "월드뷰" 또는
"가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치세요.

매달 업데이트 되는
월드뷰 칼럼은 언제나
볼 수 있어요.

신문을 보진 않지만
인터넷을 자주 사용한다.

검색창에
m.worldview.or.kr를
넣어주세요.

모니터에서도 책처럼
넘기며 월드뷰를 볼 수 있다.
즐거찾기를 애용해주세요.

난 종이 매체가 좋다.

홈페이지 가입하셔서
정기 후원을 해주세요.

정기후원 해주시는 분들에게
종이매체 <월드뷰>가
배송됩니다.
보관하시기에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기

매월 문자로 <월드뷰>
받으면
m.worldview.or.kr
을 눌러주세요.

인터넷 연결, 설정
이용해서 모바일
언제 어디서든
필요없이

이 모든 혜택은 홈페이지에 정확히 모바일 번호를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홈페이지(온라인)회원 가입시 <월드뷰>를 메일로, 매월 마지막 날엔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드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꾸준히 제작되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십시오.